

2017년 국가직 7급·2018년 9급 시험대비 국어 모의고사
이유진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 한글 맞춤법을 바탕으로 ㉠~㉢에 들어갈 예가 옳은 것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합을 원칙으로 한다.

	파생어	합성어
㉠만 충족한 경우	㉠	㉡
㉡만 충족한 경우	㉢	밥알
㉠, ㉡ 모두 충족한 경우	㉢	눈물

- ① ㉠: 해돋이, 실끔하다 ② ㉡: 싸전, 댕싸리
③ ㉢: 줄음, 폰소 ④ ㉢: 울음, 덧니

2. 다음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음성은 발음 기관을 통해 만들어지는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리이지만, 음운은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이며 의미를 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음운은 음소와 운소로 나뉜다. 음소는 분절되어 인식되는 자음과 모음을 말하고, 운소는 소리의 길이, 높낮이, 세기 등 비분절 음운을 말한다. 최소한의 음소로 의미가 달라진 단어의 쌍을 ‘최소대립쌍’이라 한다.
동일한 음운이지만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음성으로 실현되는 음은 ‘변이음’이라 한다. 예를 들어, 자음 ‘ㄱ’은 어두에서 [k](무성음), 유성음 사이에서 [g](유성음), 어말에서 [kʰ](달은 소리)로 실현된다.

- ① 남자와 여자는 같은 음성을 낼 수는 없으나 같은 음운을 발음할 수 있다.
② 소리의 길이를 잘못 발음하면 의미 전달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③ ‘살’과 ‘쌀’, ‘떡어’와 ‘막아’, ‘깡충’과 ‘깡충’은 모두 최소대립쌍의 관계이다.
④ 음운 환경에 따라 변이음으로 실현되어도 표기는 동일하다.

3. 밑줄 친 어휘의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紅塵에 뭇친 분네 이내 生涯 엇더흐고.
㉡造化神功이 物物마다 현스럽다.
㉢簞瓢陋巷에 ㉣훑튼 혜을 아니 흐너.
아모타, 百年行樂이 이만흔들 엇지흐리.

- ① ㉠: 속세 ② ㉡: 조물주의 공로
③ ㉢: 자연과 하나된 삶 ④ ㉣: 부귀영화에 대한 갈구

4. 다음 어휘의 한자 자형과 사전적 의미가 모두 옳은 것은?

- 아무도 그것의 ㉠정체에 대해 묻지 않는다.
- 금강은 아기자기한 ㉡경개 속의 신비가 있다.
- 비판 의식은 ㉢회의적 태도로 본질을 살피려는 의식이다.
- 성찰이란 지식인을 지식인답게 하는 ㉣조감 의식이다.

- ① ㉠ 停滯: 사물의 본디 형체
 ② ㉡ 景概: 경치
 ③ ㉢ 懷疑: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
 ④ ㉣ 鳥感: 높은 곳에서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 봄

5. 다음 중 문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문장은?

- ① 그는 자기가 창안한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해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② 그의 소설들은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을 혼동하거나 각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③ 유럽은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생산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라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다.
 ④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요점은 모름지기 사람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6. 다음 한시의 밑줄 친 시어 중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昨過永明寺 / 暫登浮碧樓 /
 ㉠城空月一片 / 石老雲千秋
 ㉡麟馬去不返 / ㉢天孫何處遊
 長嘯依風磴 / ㉣山青江自流
 - 이색, <부벽루>

- ① ㉠ ② ㉡ ③ ㉢ ④ ㉣

7. 괄호 안에 들어갈 한자가 모두 옳게 짝지어진 것은?

易()思之, 棟梁之(), 似()非, ()科書

- ① 地, 材, 而, 教 ② 之, 材, 以, 校
 ③ 地, 才, 而, 校 ④ 之, 才, 以, 教

8.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은 주로 세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중략] 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경감될 수 있다.

[중략]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평가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

- ① ㉠: 그는 자금 충당 방안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했다.
- ② ㉡: 직원들의 노력에도 회사의 손익이 계속 경감될 뿐이다.
- ③ ㉢: 정부는 무역 수지 개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 ④ ㉣: 집단 이기심은 사회 발전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한다.

9. 중세 국어의 특징을 고려할 때, 괄호 안에 적절한 어형은?

(가) 이 었던 光明(㉠)
 (현대어) 이 어떤 광명인가
 (나) 네 信(㉡) 아니 (㉢)
 (현대어) 네가 믿느냐(信하느냐) 아니 믿느냐(하느냐)
 (다) 그 쁘디 (㉣)
 (현대어) 그 뜻이 한 가지인가?

- | | | | |
|---|---|-----|------|
| | ㉠ | ㉡ | ㉢ |
| ① | 고 | 흐는다 | 흐가진가 |
| ② | 가 | 흐는가 | 흐가진가 |
| ③ | 고 | 흐는다 | 흐가진고 |
| ④ | 오 | 흐는가 | 흐가진고 |

10.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광역이 군수에게 잡혀 장차 압송되기 직전에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나는 과거 시험과 관련해 부정을 저질렀으므로 잡혀가면 죽을 것이니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겨 밤에 친척들과 더불어 실컷 술을 마시고 몰래 강에 투신하여 죽었다. 경시관이 이 소식을 듣고 애석해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아까워했지만, 몇몇 선비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광역은 여러 번 과거 시험에서 부정을 저질렀으므로, 그의 죽음은 마땅한 일이다.”
 매화외사(梅花外史)는 말한다.

“세상에 팔 수 없는 것이 없다. 몸을 팔아 남의 종이 되기도 하고 미세한 터럭과 형체가 없는 꿈까지도 모두 사고팔 수 있으나, 그 마음을 팔아먹은 사람은 없었다. 아마도 모든 사물은 다 팔 수 있지만 마음은 팔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유광역은 마음까지도 팔아먹은 자가 아닌가? 아아, 슬프도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매매를 글 읽은 사람이 한다고 했던가? 법전에는 ‘뇌물을 주는 것과 받는 것은 죄가 같다.’라고 되어 있다.”

<보기>

몇몇 선비들이 유광역의 죽음을 마땅한 일이라고 말한 것은, 유광역의 죽음을 () (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 ① 苦盡甘來 ② 自業自得 ③ 賊反荷杖 ④ 狐假虎威

11. 상대 높임의 정도와 격식성이 다음 문장과 같은 것은?

어제 민주가 그 음악회에 갔었니?

- ① 네가 동생한테 불펜을 가져다주었구나.
② 어떻게 그 숙제를 한 시간 만에 끝냈지?
③ 우리 오늘 공원에 가서 산책이나 합시다.
④ 어머, 그 가수가 우리 학교 축제 때 온대?

12. 사내 제안서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제목: 중복 사무 개선을 통한 경비 절감 방안

㉠ : 사무 개선을 통한 경비 절감 가능성 탐색

㉡ : 총무부 사무 경비 지출 자료에 의거, 사무 경비 증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앞으로 사무 경비가 10%이상 더 증가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 지난번 사무 경비 절감 대책회의를 바탕으로 각 위원이 부문별로 검토한 결과, 향후 사무 경비 증가 예상치를 포함, 총 20%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비 항목에 따른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제안 내용: 중복된 사무 절차를 통합하고 합리화함으로써 일부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일부 지출 항목의 폐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복사를 일정 기준으로 제한하면 일부 복사기의 사용을 중지하고 용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 이번 검토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개선점에 대하여 개별적인 문제로 압축, 각 부서별 절감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① ㉠ 목표 설정 ② ㉡ 제안 배경
③ ㉢ 제안 목적 ④ ㉣ 기대 효과

13. 다음 글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ㄱ. 지식 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標識)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며, 과학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보호가 필요한 것이 발생하고 있어 확장 일로에 있는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재산이라고 하면 유형의 것을 생각하지만 오늘날은 특허, 디자인, 저작권 등도 중요한 재산으로 평가된다.

ㄴ. 3D 프린팅 기술은 3D 프린터와 모델링 파일만 있으면 원하는 제품의 출력이 가능한 1인 생산 시대를 열고 산업 분야에서도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ㄷ. 하지만 이조차도 출력된 제품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ㄹ. 그런데 3D 모델링 파일에 대한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 현행 국내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모호하고, 디자인 보호법은 물품화되기 이전의 3D 도면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3D 프린터용 도면 파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밖에 없다.

ㅁ. 하지만 이는 필연적인 부작용을 동반하는데 바로 지식 재산권 문제이다. 제품 출력에 필요한 모델링 파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 ① ㄱ-ㄴ-ㄷ-ㄹ-ㅁ ② ㄱ-ㄷ-ㄹ-ㄴ-ㅁ
 ③ ㄴ-ㄷ-ㄹ-ㄱ-ㅁ ④ ㄴ-ㄹ-ㄱ-ㄷ-ㅁ

14. 다음 시조를 감상한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과 주인과를 뉘라셔 삼기신고
 벌과 개미가 이 뜻을 문져 아니
 한 마암애 두 뜻 업시 속이지나 마옵사이다
 <제3수>

지아비 발 갈라 간 데 밥고리 이고 가
 반상을 들오되 눈썹에 마초이다
 진실로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가
 <제4수>

형님 자신 젓을 내 조처 먹나이다
 어와 우리 아우야 어마님 너 사랑이야
 형제(兄弟)가 불화(不和)하면 개돼지라 하리라
 <제5수>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으니
 같은데 불공(不恭)하면 어디가 다르고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마로리이다
 <제6수>

- ① <제3수>에서는 ‘벌과 개미’의 생태로부터 윤리적 실천의 주체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유추하고 있다.
 ② <제4수>에서는 화자로 내세운 ‘지아비’와 지어미의 문답 방식을 통해 아내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③ <제5수>에서 어머니의 ‘젓’은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형님’과 ‘아우’가 이를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④ <제5수>의 ‘개돼지’는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는 윤리적 주체와 대비되는 의미이다.

1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덕요? 난 꼬박 5년이나 당신을 기다렸지요. 그 전엔 굶기를 밥 먹듯 한 게 몇 해였지요? 우리가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내 두 손이 바빠 움직이고 두 눈이 호롱불 빛에 짓물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 뭐가요? 앞으로도 뒤로도 어둠뿐이에요.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유유자적 더러운 세상을 경멸하며 가슴에 품은 경륜을 뽐낼 뿐이지요. 당신은 친구들과 담화할 때 학문이란 쓰임이 있어야 하고 실이 없으면 안 되고, 만물은 서로 이롭도록 운용되어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당신은 세상에 있는 소이(所以)가 없고 당신을 따르는 한 나 역시 그러해요.

그래요. ㉠당신은 봉세예요. 그러나 난 참새여서 당신의 높은 경지를 따를 수가 없어요. 난 단 한 가지만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따라서 살 거예요. 나는 열 살 때 청국과의 전쟁을 겪었고, 그 와중에서 빠져리게 느꼈어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10년이나 기약하고 독서하셨죠? 당신은 대답할 수 없으시지요, 난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 살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보다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려는 때문이라고요. 난 그렇게 하고 싶고 꼭 할 거예요…….”

- 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심리적 갈등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 ② 남편과 아내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가치관 차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③ 남편이 처한 삶의 실상을 알지 못했던 아내의 성찰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④ 남편이 이상을 추구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한 아내의 자책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6. 시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늘로 날을 듯이 길게 뽑은 부연 끝 풍경이 운다
 처마 끝 곱게 늘이운 주렴에 반월(半月)이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 가는 밤
 곱아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지고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받친 호장저고리
 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밝도소이다
 살살이 퍼져나린 곧은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열두 폭 기인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초마 끝에 곱게 감춘 운혜(雲鞋) 당혜(唐鞋)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蝴蝶)
 호접인 양 사뭇이 춤을 추라 아미(蛾眉)를 숙이고……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거문곶줄 골라 보리니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어서이다

- ①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로 리듬감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② 전통적 소재와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 ③ 인물의 행위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말줄임표로 대상의 정적 상태와 동적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했다.

17. 다음 문장을 바꾸어 쓴 것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에서 불빛이 새 나왔다. →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다.
- ② 벼를 베어 논에 쌓아 놓았다. → 벼를 베 논에 쌓아 놓았다.
- ③ 길이 움푹 패어 있었다. → 길이 움푹 패 있었다.
- ④ 노를 젓어 앞으로 갔다. → 노를 저어 앞으로 갔다.

18. 다음 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멜리에스는 편집 기법을 사용하여 특수 효과를 연출했다. 촬영하는 도중 카메라를 잠깐 멈추고, 배우들의 위치를 바꿔 촬영한 것이 전부였지만 관객들에게는 매우 신기했다.

오늘날 감독들은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에서 멀리서 잡은 샷, 클로즈업 샷 등을 이어 붙여서 화면을 구성한다. 관객들은 이것을 연속된 것처럼 인식한다.

눈을 감는 순간이나 도약 안구 운동의 찰나에 편집이 숨어들 수 있다. 이때 시각 의문도 일어나는데, 예컨대 공이 구르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공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이런 의문은 예측과 관련되어, 시각계는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결과를 기대하게 된다. 그래서 관객들은 편집된 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 ① 편집을 통해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 과학적 근거 주장
- ② 편집을 인식하지 못하는 관객들에게 비판적 의문 제시
- ③ 편집된 화면을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유 설명
- ④ 시각계와 영화 화면의 상호 작용 과정을 서술

19. 다음 글의 생략된 전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생명에 대한 권리는 개별적인 존재의 생존을 지속시킬 권리이다. 생명권을 가지는데 관련되는 욕망은 개별존재로써 생존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욕망이다. 따라서 자신을 일정한 시기에 걸쳐 존재하는 개별존재로서 파악할 수 있는 존재만이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자신을 일정한 시기에 걸쳐 존재하는 개별존재로서 파악할 수 있는 존재만이 개별존재로서 생존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존재만이 개별존재로서 생존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수 있다.
- ② 자신을 개별존재로서 파악할 수 있는 존재는 욕망을 가질 수 있다.

- ③ 권리를 소유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된 욕망을 가지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④ 생존을 지속시키려는 욕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만이 자신을 일정한 시기에 걸쳐 존재하는 개별존재로 파악한다.

20. 다음 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프리드먼은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으려면 민간과의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한다는 ㉠'준칙주의'를 주장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상황에 따라 준칙을 어기는 비밀관성을 저지르면 민간의 신뢰가 훼손되므로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이 어렵다고 본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 ① ㉠에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축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 ② ㉡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 ③ ㉠에서는 ㉡과 달리,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민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에서는 ㉠과 달리, 통화 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1. ②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이론 문법 - 형태론 - 단어의 형성]

㉡에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합성어가 들어가야 한다.

'짜전'은 '쌀'과 '전'이 결합한 합성어인데, 소리 나는 대로 '짜전'으로 표기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예) 마소(말-소), 화살(활-살), 우짚다(울-짚다) 등

'뎡싸리'는 '대'와 '싸리'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두 말이 어울릴 적에 '뎡'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표음주의에 의해 '뎡싸리'로 표기하여 ㉡의 사례로 적절하다.

예) 맵쌀(매벼쌀), 입때(이벼때) 등

[오답해설]

① ㉠에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파생어가 들어가야 한다.

'해돋이'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최종 단어 경계 형태를 '해-돋이'로 보고 합성어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발음대로 '해도지'라고 쓰지는 않으니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참고) '미달다'라는 동사는 없지만 문이나 창 따위를 옆으로 밀어서 열고 닫는 방식, 또는 그런 문이나 창을 이르는 '미달이'의 뜻을 고려할 때, 어원적으로 '밀-+달-'에서 온 '미달-'이라는 어근 뒤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파생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실کم하다'는 한글맞춤법 21항의 다만(겹받침에서 뒤엿것이 발음되는 경우에는 그 어간의 형태를 밝히어 적고, 앞엿것만 발음되는 경우에는 어간의 형태를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에 의해 어간의 형태(실-)를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파생어이다.

③ ㉡에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파생어가 들어가야 한다.

‘졸음’은 어근 ‘졸-’에 접사 ‘-음’이 붙은 파생어이며 [조:름]으로 발음된다. 발음과 달리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고 있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참고) ‘졸다’의 어간 ‘졸-’ 뒤에 명사형 어미 ‘-ㅁ’이 붙으면, ‘졸’의 형태가 되므로, ‘수업 시간에 졸.’과 같이 적는다.

‘푼소’는 어근 ‘푼’과 어근 ‘소’가 결합한 합성어일 뿐만 아니라 한글맞춤법 제29항(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에 의해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참고) 푼소: 여름에 생फल만 먹고 사는 소. 힘을 잘 쓰지 못하여 부리기에 부적당하다.

㉡ 반진고리, 사흘날, 손가락, 잘다듬다, 설부르다 등

④ ㉡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면서 동시에 어법에 맞도록 적은 파생어가 들어가야 한다.

‘울음’은 어근 ‘울-’에 접미사 ‘-음’이 붙은 파생어로, [우름]이라는 소리대로 적지 않고 형태소를 밝혀 적고 있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덧니’는 접사 ‘덧-’과 어근 ‘이’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하지만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2. ㉢

[독해 - 비문학 - 내용확인 + 이론 문법 - 음운론]

최소대립쌍은 최소한의 음소로 의미가 달라진 단어의 쌍이다. ‘살’과 ‘쌀’은 초성인 자음만 다르고, ‘깡충’과 ‘깁충’은 첫 음절의 중성인 모음만 달라서 최소대립쌍이다. 하지만 ‘먹어’와 ‘막아’는 첫 음절의 중성과 둘째 음절의 중성이 모두 달라 최소대립쌍의 관계가 아니다.

[오답해설]

① 음성은 물리적 소리라 사람마다 다르지만, 음운은 추상적 소리이므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같은 음운을 발음할 수 있다.

② 소리의 길이는 비분절 음운인 운소로서 의미 변별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발음되는 자리에 따라 발음이 달라도 모두 ‘ㄱ’으로 표기하는 것을 통해 변이음은 표기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

[독해 - 문학 - 고전 운문의 내용 이해 + 어휘 - 문학 속 한자어]

지문: 정극인, <상춘곡>

단표누항(簞瓢陋巷): 누항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뜻으로,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이르는 말.

[비슷한 말] 陋巷簞瓢(누항단표), 安貧樂道(안빈낙도), 安分知足(안분지족)

物我一體(물아일체): 자연물과 자아가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대상에 완전히 몰입된 경지를 나타낸다.

[비슷한 말] 物心一如(물심일여), 渾然一體(혼연일체)

[오답해설]

① 홍진(紅塵): 번거롭고 어지러운 속된 세상

② 조화신공(造化神功): 만물을 창조한 신(조화왕)의 공로

④ 홋튼 혜음: 허튼 생각(부귀영화에 대한 갈구)

4. ②

[어휘 - 한자어]

㉠ 경개(景概): 경치

㉡ 동해의 그림과 같은 경개가 좋다.

경개(梗概): 전체 내용의 요점만 간단하게 요약한 줄거리

[오답해설]

① ㉠ → 정체(正體): 사물의 본디 형체

정체(停滯): 사물이 발전하거나 나아가지 못하고 한자리에 머물러 그침

③ ㉢ → 회의(懷疑): 의심을 품음. 마음에 품고 있는 의심

제시된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은 '후회(後悔)'의 의미이다.

④ ㉣ → 조감(鳥瞰): 높은 곳에서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 봄

5. ②

[이론 문법 - 통사론 - 올바른 표현 - 문장 다듬기]

그의 소설들은 엇비슷해서 + [학생들이 작품 이름을 혼동하거나 / 각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정확한 문장이다.

[오답해설]

① '그는 자신이 창안한 사회 이론을 발전해'는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는다. '그는 자기
가 창안한 사회 이론을 발전시켜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로 고쳐야 정확한
문장이 된다.

③ '생산 기술의 발달'과 '큰 변화를 겪었다'는 문장의 호응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 '유럽은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생산 기술이 발달하였고, 그에 따라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다.'로 고쳐야 정확한 문장이 된다.

④ 주어 '요점은'과 서술어 '알아야 한다'가 호응이 되지 않는다.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
하려는 요점은 모름지기 사람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로
고쳐야 정확한 문장이 된다.

6. ④

[독해 - 문학 - 고전 운문의 내용 이해 + 어휘 - 한자]

제시된 시는 고려 말의 문인이었던 이색이 옛 고구려의 유적지인 부벽루에 올라 과거 왕조를
회상하며 읊은 5언 율시의 한시이다. 평양의 부벽루에 올라 지난날 찬란했던 동명성왕의 업적
을 회상하며 현재 텅 빈 성만 남아 있는 현실에 애통해하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자연의 영
원함과 대비되는 인간 역사의 유한함을 자각하고 고려의 기상이 회복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엿보인다. '㉠산'은 변하지 않는 자연의 영원함을 의미하며, '텅 빈 성', '기린마', '천손'은 다
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인간의 역사의 유한함을 의미한다.

[현대어풀이]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昨過永明寺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暫登浮碧樓

㉠텅 빈 성엔 조각달 떠 있고

城空月一片

천 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石老雲千秋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麟馬去不返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서 노니는가	天孫何處遊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부노라니	長嘯依風磴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山靑江自流

7. ①

[어휘 - 한자어]

易地思之(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참고) 地(땅 지), 之(갈 지)

棟梁之材(동량지재): 기둥과 들보로 쓸 만한 재목이라는 뜻으로, 한 집안이나 한 나라를 떠받치는 중대한 일을 맡을 만한 인재를 이르는 말.

참고) 材(재목 재), 才(재주 재)

似而非(사이비):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 또는 그런 것.

≒似是而非(사시이비)

참고) 而(말 이을 이), 以(써 이)

教科書(교과서): 「1」『교육』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

「2」해당 분야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참고) 教(가르칠 교), 校(학교 교)

8. ②

[어휘 - 문맥에 적절한 한자어]

‘경감(輕減)되다’는 ‘부담이나 고통 따위가 줄어서 가볍게 되다.’의 뜻으로, ‘부담’이나 ‘고통’에 해당하는 말과 의미상 호응 관계를 이루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②에 제시된 문장의 맥락을 ‘직원들의 노력에도 회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로 본다면, ‘손익이 계속 경감될 뿐이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손익’은 손해와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경감되다’와 의미상 호응을 이루지 않는다.

[오답해설]

① ‘충당(充當)’은 ‘모자라는 것을 채워 메움.’의 뜻이므로, ‘자금 충당’은 의미상 적절한 표현이다.

③ ‘개선(改善)’은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들.’의 뜻이므로, ‘무역 수지(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의 수출입 거래로 생기는 국제 수지.) 개선’은 의미상 적절한 표현이다.

④ ‘저해(沮害)하다’는 ‘막아서 못하도록 해치다.’의 뜻이므로, ‘사회 발전을 저해할’은 의미상 적절한 표현이다.

9. ①

[이론 문법 - 고전 문법 - 의문문]

의문사가 없이 가부(可否)의 판단만을 묻는 판정 의문에는 ‘가’가 쓰이고, 의문사가 있어 상대 방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에는 ‘고’가 쓰인다. 의문의 보조사 ‘가’ ‘고’는 ‘ㄹ’이나

‘ㅣ’ 모음 뒤에서는 ‘ㄱ’이 ‘ㅇ’으로 약화되어 각각 ‘아’, ‘오’로 나타난다. 주어가 2인칭인 경우 의문보조사 ‘다’가 붙는다.

(가)에서는 의문사 ‘엇던’이 있고, ‘光明’이라는 체언이 ‘ㄹ’이나 ‘ㅣ’로 끝나지 않았으므로, 의문의 보조사 ‘고’가 사용되어야 한다.

(나)의 의문형은 주어가 2인칭이므로 의문보조사 ‘다’가 사용되어야 한다.

(다)의 의문형은 의문사가 없으므로 판정 의문의 ‘가’가 사용되어야 한다.

10. ②

[독해 - 문학 - 고전 산문의 내용 이해 + 어휘 - 한자성어]

지문: 이옥, <유광역전>

이 작품은 유광역이라는 인물을 통해 과시를 파는 행위가 만연한 사회의 타락상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작가는 가난하고 지위가 낮아 남의 답안을 대리로 작성해 살아가는 주인공의 처지를 드러내면서 이 세상에 팔지 못할 물건이 없게 된 상황을 풍자하고 있다. 작품 속 ‘매화의 사’는 작가 이옥의 별호인데, 작가는 작품의 앞뒤에 세태와 유광역에 대한 논평을 덧붙이고 있다.

‘自業自得(자업자득)’은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음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해설]

① ‘苦盡甘來(고진감래)’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오음을 이르는 말이다.

③ ‘賊反荷杖(적반하장)’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이다.

④ ‘狐假虎威(호가호위)’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을 이르는 말이다.

11. ①

[이론 문법 - 높임법과 언어예절 - 상대 높임법]

제시된 문장에서는 의문형 종결 어미 ‘-니’가 쓰였다. ‘-니’는 격식체 중 상대를 낮추는 해라체 어미이다. ①에 쓰인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는 격식체 중 상대를 낮추는 해라체 어미이다.

[오답해설]

② ‘-지’는 비격식체 중 해체 어미로서 상대를 낮추는 표현이다. ‘요’가 붙은 ‘-지요’가 되면 해요체가 된다.

③ 청유형 종결 어미 ‘-십시오’는 격식체 중 하오체 어미이다.

④ ‘온대’는 ‘온다고 해’의 준말로서 ‘해’에 쓰인 어미 ‘-어’는 비격식체 중 해체 어미이다. ‘해’에도 ‘요’가 붙으면 해요체 ‘해요’가 되고 ‘온다고 해요’가 줄어들면 ‘온대요’가 된다.

12. ②

[독해 - 실용글쓰기 지식]

㉠ 제안 배경: 제목을 통해 방치했을 시 사무 경비 증가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현재 상황’은 곧 ‘중복 사무’임을 알 수 있다. ‘중복 사무’는 계속 방치하면 사무 경비 증가의 원인이 될 것이므로 사무 개선의 방법을 제안하려고 하고 있다.

[오답해설]

- ① ㉞ 제안 목적: 사무 개선을 하면 경비 절감의 가능성이 있고 그를 위한 구체적 방법 또한 발견했음을 말함으로써 앞으로 사무 개선의 방법을 제안하겠다는 글의 목적을 말하고 있다.
- ③ ㉟ 기대 효과: 중복 사무를 개선하면 경비를 총 20% 절감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며 중복 사무 개선을 통한 경비 절감 방안에 대해 제안하는 것이다.
- ④ ㊱ 목표 설정: 사내 제안서를 바탕으로 앞으로 개별적인 문제로 압축하여, 각 부서에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13. ④

[독해 - 비문학 - 배열]

접속어가 포함되지 않은 ㄱ 또는 ㄴ으로 문장이 시작되어야 한다. 만약, 지식 재산권이 주된 흐름인데 사례로써 3D 프린팅을 다룬 글이라면 ㄱ으로, 3D 프린팅의 지식 재산권 문제를 다룬 글이라면 ㄴ으로 시작될 것이다.

ㄷ, ㄹ, ㅁ을 읽어보며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ㅁ을 보면, 앞에 언급된 어떤 것의 부작용이 '지식 재산권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글의 첫 문장은 ㄴ이다.

ㄴ 뒤에 자연스럽게 지식 재산권에 관한 설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ㅁ이 연결되는 수밖에 없다. ㅁ에서 최초로 지식 재산권을 언급하였기에 지식 재산권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결되는 문장이 ㄱ이다. 남은 ㄷ과 ㄹ은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긴 상황을 설명한다. 이때 ㄷ은 3D 프린팅과 관련 있는 '출력된 제품'이라는 어구가 갑자기 등장하여 부적절하다. ㄹ이 ㄱ을 뒤이으며 'ㄱ처럼 권리 보호 제도가 있으나 ㄷ과 같이 한계가 있다'는 식의 흐름이 적절하다. ㄷ은 ㄹ을 이어, 도면 파일과 달리 출력된 제품의 경우는 다시 문제에 봉착한다는 의미로 적절한 흐름이다.

14. ②

[독해 - 문학 - 고전 운문의 내용 이해]

지문: 주세붕, <오륜가>

본문의 <제4수>는 '반상을 들오되 눈썹에 마초이다(거안제미, 擧案齊眉)'를 통해 남편을 섬기는 아내의 도리를 노래하고 있으므로, 아내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정당화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4수>는 화자가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지, 지아비와 지어미의 문답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해설]

- ① <제3수>는 여왕별이나 여왕개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벌과 일개미의 생태로부터 주인(임금)에 대한 종(신하)의 도리라는 윤리적 실천의 주체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유추하고 있다.
- ③ <제5수>의 초장에서 아우가 '형님 자신 젓을 내 조처 먹나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젓'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시어로 볼 수 있다. <제5수>에서 형님과 아우는 이를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 ④ <제5수>의 '개돼지'는 오륜을 지키며 실천하는 바람직한 사람과 대비되는 존재를 비유한 표현이다.

15. ②

[독해 - 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지문: 이남희, <허생의 처>

‘봉채’는 하루에 구만 리를 날아간다는 매우 큰 상상의 새를 가리킨다. ‘참새’는 이와 대조되는 존재로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에 해당한다. 다만 대화 상황과 내용을 고려할 때, 아내는 자신과 달리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현실과 동떨어진 큰 이상만 품고 사는 남편을 비판하기 위해 이를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오답해설]

- ① 심리적 갈등을 표현한 것은 맞지만 논리적 모순이 드러난 표현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 ③ 아내의 성찰보다는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적인 삶을 표방하는 남편의 태도에 대한 아내의 비판이 담긴 표현이다.
- ④ 남편은 집안을 돌보지 않고 스스로 유희자적하는 삶을 살았다. 따라서 아내가 이를 허용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6. ④

[독해 - 문학 - 현대 운문의 표현상 특징]

지문: 조지훈, <고풍 의상>

시의 12행에 말줄임표가 나타나지만 이는 ‘아미를 숙이고’ 있는 여인의 자태와 ‘호접’의 이미지와의 조화를 통해 정서적 여운을 함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전적 아름다움이 형상화된 것이지 시적 화자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오답해설]

- ① ‘곱아라’, ‘파르란’과 같은 시어의 변형을 통해 리듬감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② ‘호장저고리’, ‘운혜 당혜’, ‘거문곶줄’과 같은 전통적 소재와 ‘아름다운지고’, ‘밭도소이다’, ‘흔들어지이다’와 같은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여인의 움직임이 ‘한 마리 호접’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17. ③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파다’의 어근 ‘파-’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파생어 ‘파이다’의 어간 ‘파이-’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할 때에는 ‘파이어’로 적는다. 또한 준 형태로 적을 때에는 한글 맞춤법 제34항의 [붙임1] ‘다만’ 조항에 따라 ‘패어’로 적거나 한글 맞춤법 제38항에 따라 ‘파여’로 적어야 한다.

‘패여’는 ‘파이어’이므로 옳지 않고, ‘패’는 어미 없이 어간 ‘파이-’만 ‘패’로 준 것이므로 옳지 않다.

[제34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다만, ‘ㅅ’불규칙 용언의 어간에서 ‘ㅅ’이 줄어진 경우에는 ‘-아/-어’가 줄어지지 않는 게 원칙이다.

[붙임 1] 어간 끝모음 ‘ㅐ, ㅑ’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다만, 어간 모음 ‘ㅏ’뒤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ㅐ’로 줄어지는 경우는, ‘어’가 줄어지지 않는 게 원칙이다.

[붙임 2] ‘하다’는 ‘여’불규칙 용언이므로, ‘하아’로 되지 않고 ‘하여’로 된다. 이 ‘하여’가 한 음절로 줄어진 형태는 ‘해’로 적는다.

[제38항]

‘ㅏ, ㅑ, ㅓ, ㅕ, ㅗ, ㅛ’ 뒤에 ‘-이어’가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오답해설]

- ① “어간 끝모음 ‘ㅐ, ㅑ’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는 조항에 따라 어간 ‘새-’와 어미 ‘-어’의 결합인 ‘새어’를 줄인 형태가 ‘새’이므로 ‘새’를 ‘새어’로 바꾸어 써도 옳은 표기이다.
- ② “어간 끝모음 ‘ㅐ, ㅑ’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는 조항에 따라 어간 ‘베-’와 어미 ‘-어’의 결합인 ‘베어’를 줄인 형태가 ‘베’이므로 바꾸어 써도 옳은 표기이다.
- ④ ‘졌다’는 활용할 때 ‘ㅅ’ 불규칙 활용하는 용언이므로 모음 어미 ‘-어’ 앞에서 ‘ㅅ’이 탈락하여 ‘저어’라고 고치는 것이 옳다.

18. ③

[독해 - 비문학 - 내용 전개 방식]

1, 2문단에서는 편집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3문단에서는 편집된 부분에서 시각 변화가 있음에도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해설]

- ① 영화에서 편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하고 있지만 중심적인 것이 아니며, 편집을 통해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 ② 관객들이 편집된 부분의 시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한 흥미로움을 표현하고 있지만, 비판적인 자세로 영화를 볼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 ④ 편집된 화면이 연속적으로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시각계와 영화의 화면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19. ③

[독해 - 비문학 - 생략된 전제 추론]

지문은 생명권을 가지는 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존재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와 같은 존재는 생존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같은 논리에 함축된 전제는 권리와 욕망 사이의 상관관계와 관련된 ‘③ 권리를 소유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된 욕망을 가지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가 가장 적절할 것이다.

20. ①

[독해 - 비문학 - 내용 확인 + 일반 추론]

‘준칙주의’와 ‘재량주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와 관련하여 준칙을 수용하는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준칙주의’에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어김으로써 중앙은행에 대한 민간의 신뢰가 훼손되면 더 큰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은행이 준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즉 ‘준칙주의’의 입장에서는 경제 변동에 신속적인 대응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준칙은 잘 지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답해설]

②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재량주의’에서는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이 어렵다고 본다.

③ ‘준칙주의’는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민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재량주의’는 이와 달리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④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재량주의’에서도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